

##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지난해보다 낮아져

-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256천톤, 평시대비 1.5배), 할인지원(960억원, 전년대비 3.1배) → 16개 성수품 소비자가격 전년 대비 3.2% 하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을 작년보다 3.2%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 밤·대추

### ①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 (계획) 243천 톤 → (실적) 256천 톤(105.2%)

양 부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6개 성수품 총 256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2%, 평시대비 1.5배)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였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였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 ② 역대 최고 수준 할인 지원 : (계획) 840억 원 → (실적) 940억 원(111.9%)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였으며, 정부가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 할인하여 소비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설 명절 직전 사과·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2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사례1. 대형마트에서 할인받기

충북 00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6일 00마트를 방문하여 제수용 사과와 배를 구입하였다. 표시된 마트 행사가격에서 추가로 정부할인과 카드할인까지 받으니 실제로는 5~6천원 정도 할인되어 사과는 3개들을 7,790원에, 배는 3개들을 10,900원에 구입하게 되어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수산물 4만원 한도, 20% 할인)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120개 전통시장(수산물은 85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 ♫ 사례2. 전통시장에서 환급받기

경북 00군에 거주하는 B씨는 명절 차례상에 올릴 수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주말인 2월 4일 인근 00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참조기 2만원어치, 문어 5만원어치, 명태포 2만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이후 현장 환급행사장에 들러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받아 가족들과 저녁에 먹을 새우 등을 추가로 구매하였다. 현금 7만원으로 9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게에 도움이 되었다.

### ㉓ 16개 설 성수품 가격 : 전년 대비 △3.2%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3.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0.7%), 배(19.2%)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9.9%)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고기(△2.8%), 돼지고기(△6.4%), 계란(△11.3%) 등 축산물과 갈치(△11.0%), 명태(△7.6%)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 16개 성수품 소비자가격(1.19~2.7일, 전년 설 前 3주간 평균 대비) : △3.2%(물가 가중평균), (배추) 3,092원/포기(3.5%), (무) 1,547원/개(△16.5%), (사과) 26,495원/10개(10.7%), (배) 32,796원/10개(19.2%), (소고기-등심) 9,492원/100g(△2.8%), (돼지고기-삼겹) 2,315원/100g(△6.4%), (닭고기) 5,625원/kg(△1.0%), (계란) 5,891원/30개(△11.3%), (밤) 6,017원/kg(1.9%), (대추) 16,639원/kg(0.1%), (명태) 2,918원/마리(△7.6%), (오징어) 4,266원/마리(9.9%), (갈치) 3,000원/마리(△11.0%), (참조기) 1,801원/마리(△2.5%), (고등어) 3,258원/마리(1.8%), (마른멸치) 20,049원/1kg(△9.3%)

해수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수산 성수품 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설 이후에도 수산 식품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비롯한 민생안정 대책을 취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와 생산자·유통업체가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었다.”라며, “설 이후에도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해수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447)
담당 부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044-201-2234)